

고치쥬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



남해에서 이름이 높은 성-고치쥬

고치쥬(高知城)는 성의 혼마루(本丸: 중심건물, 주성(主城), 혼마루(本丸)를 중심으로 하여 그 외곽에 니노마루(二ノ丸)·산노마루(三ノ丸) 등을 배치하고, 대개의 성에는 깊은 해자가 둘러져 있다. -역주) 건축 군이 모두 현존하는, 에도(江戸)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일본 유일의 성곽이다. 원래 이 장소에는 남북조시대에 쌓여진 오타카사카쥬(大高坂城)가 있었고, 전국시대에는 쇼소가베 모토치카(長宗我部元親)가 오코쥬(岡城)로 부터 옮겨와 축성에 임했다. 그러나 치수(治水)가 곤란하여 불과 3년 후에 모토치카(元親)는 우라도쥬(浦戸城)로 이동했다. 그 후 세키가하라전투(関ヶ原の戦)의 공적으로 엔슈카케가와(遠州掛川)(현재의 시즈오카현-역주)에서 입국한 아마우치 카쓰토요(山内一豊)가 이 땅을 성의 지역으로 정하고, 케이쥬(慶長)6년(1601년) 가을부터 축성을 시작했다.

카쓰토요(一豊)는 축성가로 알려진 도도에치젠 노카미 야스유키(百々越前守安行)를 총 부교(奉行: 행정, 재판, 사무 등을 담당하는 무사의 직명-역주)로 임명하고, 이곳 마을에서 석재와 목재를 가져와 공사를 진척시켰지만 난공사가 많았다. 마지막에 남은 산노마루(三ノ丸)가 완성된 것은 10년 후, 2대 번주인(藩主: 에도시대 막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봉건사회체제에서 영주-역주) '타다요시'가 치세를 행한 케이쥬(慶長)16년(1611년)이었다. 교호(享保)12년(1727년)에는 일부의 건물을 남기고 소실되어 즉시 복구에 나섰지만 재정난 등으로 텐슈카쿠(天守閣)가 부흥할 때까지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했다. 그 후 메이지(明治)유신에 의해 폐성이 되어 혼마루(本丸)와 오테문(追手門: 주로 성의 입구문을 칭함-역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허물어졌고, 공원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별명은 다카쥬(매가 날개를 펴 있는 모습과 비슷해서(鷹城)이라고 한다.



석통

비가 많은 도사(土佐: 고치현의 옛 지명-역주)인 만큼, 고치쥬(高知城)에 있어서 '아마지마이(雨仕舞: 비가 새는 것을 막는 방법)'는 적으로부터의 방어 못지않게 중요했다. 성내(城内)에는 많은 수로가 마련되어 돌담으로부터 돌출한 석통(石樋)에서 배수되고 있다. 성내(城内)에서 16군데가 확인되고 있으며, 혼마루(本丸)의 석통(石樋)은 지금도 역할을 다하고 있다. 산노마루(三ノ丸)에서 발굴된 수로와 석통(石樋)의 구조는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돌담

고치쥬(高知城)의 돌담은, 오우미(近江: 시가현의 옛 지명-역주)의 기술자 집단인 '아노우슈'(穴太衆)가 시공했다. 비가 많은 지방의 성질을 고려하여, 무너지기 어렵고 배수 능력이 높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이 공법은 노주라즈미 野面積 라고 한다) 겉보기는 잡다하게 보이지만, 대단히 튼튼한 건축 방법이다. 한편 성내(城内)에서는 스키노단(杉ノ段: 삼목단)에 있는 돌담과 데쓰문(鐵門)에 있는 우치코미하기(打込ハキ: 두드려 박아 이름) 돌담이 특히 아름다우니 꼭 볼 만하다. 산노마루(三ノ丸)에서는 쇼소가베 모토치카(長宗我部元親)가 이곳에 축성했을 무렵의 돌담이 발굴되어 볼 수 있게 되었다.

고치쥬의 불만한 곳 안내

군사거점으로서 성의 성격을 나타내는 귀중한 유구(遺構)가 고치쥬(高知城)에는 많이 남아있다. 성내(城内)의 각 곳에서 직각으로 구부러진 돌담은 '요코야카리(横矢掛り)'라고 하며, 사각(死角)을 없애서 어디에서든지 화살을 적에게 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담에 돌린 원, 삼각, 사각 또는 각양각색 모양의 '야자마(矢狭間: 화살구멍)'는 이곳에서 화살로 적을 내몰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 요새인 천수(天守)에 설치된 '이시오토시(石落とし: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병에게 무거운 돌을 떨어뜨리는 방어시설-역주)'와 철책으로 철검이 붙어 있어, 이것을 돌파해서 천수에 들어가는 일은 지극히 어려웠다.

방어



고치쥬(高知城)를 둘러싼 해자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약 1/3도 안 된다. 또 해자의 폭도 현재는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의 안쪽에 있던 도루이(土塁(토루): 흙으로 쌓은 보루-역주)도 철거되는 등 번정기(藩政期)와는 형태가 크게 변했다. 옛날에는 성의 서북으로 흐르는 에노쿠치강(江ノ口川)에서 물을 끌어들이어 해자를 채웠다.

해자



고치쥬약연보

- 케이쥬(慶長)6년 [1601년] 아마우치 가쓰토요(山内一豊)가 도사국(土佐国)에 입국해 우라도쥬(浦戸城)에 거성(居城). 오타카사카야마(大高坂山)에 고치쥬(高知城) 축성 시작.
- 케이쥬(慶長)8년 [1603년] 혼마루(本丸)와 니노마루(二ノ丸)의 돌담공사 완성. 8월 21일 아마우치 가쓰토요(山内一豊)가 입성한다. 오타카사카야마(大高坂山)의 지명을 '고치야마(河中山)'로 바꿈.
- 케이쥬(慶長)15년 [1610년] 고치야마(河中山)를 고치야마(高智山)로 한자만 바꿈.
- 케이쥬(慶長)16년 [1611년] 산노마루(三ノ丸)가 완성되어 거의 모든 성곽이 정비됨.
- 교호(享保)12년 [1727년] 성 시가에서 큰 불로 오테문(追手門)을 남기고 텐슈카쿠(天守閣)를 비롯하여 성곽의 대부분이 소실됨.
- 교호(享保)14년 [1729년] 후카오 타테야키(深尾帯刀)를 건축공사 부교(奉行: 행정, 재판, 사무 등을 담당하는 무사의 직명-역주)로 임명하여 성곽재건 착공.
- 간엔(寛延)2년 [1749년] 텐슈카쿠(天守閣)를 비롯하여 망루, 성문 등이 완성. 현재의 텐슈카쿠(天守閣)는 이 때 지어진 것.
- 호레키(宝暦)3년 [1753년] 재건 이래 25년이 지나서 거의 모든 성곽이 정비됨.
- 고카(弘化)3년 [1846년] 텐슈카쿠(天守閣)가 수리됨.
- 메이지(明治)7년 [1874년] 고치(高知)공원으로 일반 개방됨.
- 쇼와(昭和)9년 [1934년] 국보로 지정. (쇼와(昭和)25년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의해 중요 문화재가 된다)
- 쇼와(昭和)23년 [1948년] 천수를 비롯해 각 건물 수리 시작.
- 쇼와(昭和)34년 [1959년] 수복공사 완성. 사적(史跡)으로 지정.
- 헤세(平成)13년 [2001년] 축성400년제 개최.
- 헤세(平成)22년 [2010년] 산노마루(三ノ丸) 돌담수복 공사 완성.

고치쥬 주변건기



- 1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탄생지/해원대(海援隊) 대장. 삿쥬(薩長)동맹 체결이나 '선중팔책(船中八策)'의 기초(起草) 등을 통해 대정봉환(大政奉還)실현에 진력. 부근에 '료마(龍馬)가 태어난 거리 기념관'이 있다.
- 2 테라다 토라히코(寺田寅彦) 기념관/물리학자, 수필가로서 저명. 나쓰메 소세키와 친분이 있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산시로(三四郎)'에서 등장인물의 모델로 여겨진다.
- 3 치도칸몬(致道館門(지도관문)) / 분큐(文久)2년(1862)에 창설된 향교(향교(향교)): 에도시대에 각 '번'에서 무사의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세운 학교.)로, 그 문만이 남아있다.
- 4 도사 아마우치(土佐山内)가보 자료관/도사번(土佐藩)에서 전해 내려 온 고문서, 미술공예품, 역대 번주(藩主)의 유품 등을 소장 전시하는 박물관.
- 5 구 아마우치가(山内家) 시모야시키(下屋敷: 별저) 나가야(長屋: 에도시대의 상급무사들은 '나가야'를 지어 가신이나 하인들을 살게 함-역주)/아마우치 요도(山内容堂)의 별저 경호를 맡은 무사의 숙소이며,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
- 6 오카와노지(大川筋) 부케야시키(武家屋敷: 무사저택-역주) 자료관/성시(城下)에서 유일하게 남은 부케야시키(武家屋敷). 서원조(書院造: 선종(禪宗)의 서원 양식이 관원, 무사의 주택에 채택된 것으로 현재의 일본식 주택은 거의 이 양식인-역주)의 안채와 나가야문(長門門)이 있다.
- 7 노나카 켄잔(野中兼山) 저택자취 / 번정초기(藩政初期)의 가신 장로로 향안정비나 관개, 삼림정비 등 식산흥업(殖産興業)에 힘쓰고, 도사번(土佐藩) 경제의 초석을 쌓았으나, 후에 실각한다.
- 8 아마우치 요도(山内容堂) 탄생지 / 15대 도사번주(土佐藩主)로, 바쿠후 말기 4대 현후(현명한 영주)의 한사람으로 중앙정계에서 활약. 공무(公務: 조정과 막부) 합체파였지만, 후에 료마(龍馬)나 고토 소지로(後藤象二郎)의 의견을 받아 대정봉환(大政奉還: 1867년 일본 에도

바쿠후(江戸幕府)가 천황에게 국가 통치권을 돌려준 사건-역주)을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에 건의한다.

9 다케치 주이잔(武市瑞山) 순절지비/도사(土佐) 근왕당(勤王党) 당수. 존왕양이(尊王攘夷: 왕을 높이고 외국인을 배척한다-역주)운동에 힘썼고, 한때는 도사번정(土佐藩政)에서 사실상 우위를 잡았으나 후에 할복에 처해졌다.

10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탄생지/메이지(明治) 정부에서 참의(參議)를 맡고, 뒤에 자유민권운동의 최고지도자로서 활약. 오테문(追手門)을 들어가면 곧 동상이 있다.

11 고토 소지로(後藤象二郎) 탄생지/대정봉환(大政奉還)실현을 위해 활약. 메이지(明治)이후에는 정치가가 된다.

12 일요시장(日曜市) / 300년이나 계속되는 일본 최대의 가로시장(街路市)

13 요시다 토요(吉田東洋) 기념비/바쿠후 말기에 요도(容堂)를 도와 활약. 선진적인 정책을 취했으나, 다케치 한페이타(武市半平太)의 명을 받은 도사근왕당(土佐勤王党)의 자객에게 암살되었다.

14 릿시사(立志社) 자취 / 메이지(明治)7년에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와 가타오카 켄치(片岡健吉)에 의해 설립되어, 자유민권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

15 하리마야바시(하리마야다리)/번정(藩政)초기의 호상(豪商)인 하리마야 소토쿠(播磨屋宗徳)와 히쓰야 도세이(櫃屋道清)가 양가의 왕래를 위해 설치한 가고, 요사코이부시(ヨサコイブシ: 도사지방민요의 하나-역주)의 '스님 비녀'로 유명하다.

(개관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휴관일) 12월 26일~1월 1일